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

최진숙
(영산대학교)

Choi, Jin-Sook. (2019). Attitude changes toward Korea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ased on English proficienc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4), 53–66.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English skills-based international students' attitudes toward Korean have changed after studying Korean language over the last one semester. Twenty-eight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ased on English skills participated in two questionnaire surveys in March and September 2019,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ir attitudes toward Korean changed positively, particularly in the interest in learning Korean and favoritism of Korean people. In addition, the fear of learning Korean had been weakened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can be a good sign in improving Korean proficiency. The degree of exposure to Korean, Korean people and Korean culture, includ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d a part-time job increased. When the level of English skills was applied to the attitude changes as a variable, the attitudes toward Korean did not change proportionally as per the level of English skills. However, it was noticeable that attitudes of the group in the highest level of English skills changed in the most positive degre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attitudes can change positively after taking a Korean language study, which is likely to affect the degree of exposure to Korean, Korean people and Korean cultur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strengthen the belief that the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ased on English skills are able to complete their studies in Korea successfully as long as they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in the university.

주제어(Key words): 외국인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attitude change toward Korean), 영어능력(English proficiency)

1. 연구목적과 필요성

최근 한국의 대학들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학령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입학자원을 외국인유학생으로 채우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현진, 2019). 그 결과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유학생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교육통계, 2018), 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번진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일정한 한국어능력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성적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들(박미숙 외, 2014; 박순영, 2015; 주동범 & 김향화, 2013; 안위 & 최영, 2016; 최진숙, 2015, 2016; 최현실, 2018)은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대학으로 입학 지원 자격을 한국어능력 시험 성적뿐 아니라, 영어능력시험(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IELTS 5.5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 시험성적) 성적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능력 없이 영어능력으로만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은, 한국어능력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에 비해 유학생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사용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유학목적 달성과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업매개 (medium of instruction)를 영어로 하는 교과목만을 수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영어능력시험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 교과과정에 한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영어능력시험 입학 유학생들도 한국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이상,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한국어능력은 학업을 위해서도 시간제근로를 위해서도, 나아가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이 접한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그들의 유학생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국어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영어능력시험 입학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 향상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변화를 조사하려고 한다. 즉,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수업을 변수로 하여, 한국어 수업 전의 태도와 한국어 수업 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측정하여 한국어수업으로의 노출이 그들의 태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입학할 때 제시한 영어능력시험 성적이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어능력 변수와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분석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입학 시 제시하는 영어능력 수준이 한국어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되는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결과는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국어환경에서의 적응상황을 보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능력 없이 영어능력만을 가지고 입학했어도 한국어학습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의 잠재력을 판단하게 해줄 것이다. 나아가 언어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영어능력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 환경에 놓인 외국인유학생들이 새로운 언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언어태도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언어태도 변화 연구

2.1. 정의

2.1.1.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한국어에 대한 태도’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어 수업으로의 노출을 통해 한국어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에 대해 보여준 총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어와 관련해서 제시된 항목들에는, 한국어에 대한 호감, 한국어에 대한 필요 인식, 한국어 사용의 편리성, 한국어학습의 흥미, 한국어 학습의 두려움, 한국인들에 대한 느낌,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등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태도들은 인식적 (cognitive) 및 감정적(affective)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면구조’(multi-layered structure)(Baker, 1993)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태도를 측정할 때 외적인 관점(behavioristic view)과 내적인 관점(mentalic view)이 있는데(Fasold, 1985), 행동으로 측정해야 하는 외적인 관점(behavioristic view)은 상황에 따라 행동자체가 변하기 쉽고, 따라서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에서는 외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적(또는 정신적) 및 감정적(또는 심리적) 요소 등을 포함해서 ‘다면구조’로 나타나는 내적인 관점(mentalic view)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최진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측정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평점이 높으면,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반대로 태도평점이 낮으면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사용 빈도 및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 또한 언어태도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노출도가 높으면 한국어성취도가 높을 수 있고, 반대로 노출도가 낮으면 한국어성취도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 평점을 조사시점이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 측정한 결과, 이미 측정된 이전의 태도평점과 다르면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정의한다.

2.1.2. 한국어수업

본 논문에서의 ‘한국어수업’이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하나인 Y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해 놓은 한국어교과목, ‘한국어 연습과 활용’을 의미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 강사의 강의와 함께 한국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된다. 나아가 ‘한국어수업’에서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한국어문법과 독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교재가 사용되고, 이러한 한국어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이해하는 활동과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활동은 물론 나아가 과제제출 등 한국어학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한국어수업’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수업’은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만 수강하게 되어 있으며,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수업내용 및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어수업’은 한 학기에 15주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되었다.

2.2. 언어태도변화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게 되면 그 학습언어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형성된다. 인간이 특정한 사물이나 언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태도 형성은 자연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최진숙, 2012).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언어태도를 통해 학습하는 언어의 성취도 및 언어능력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학습 현장에서 언어태도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최진숙, 2012; Choi, 2005; Gardner, 1985; Loulidi, 1990). 그리고 이러한 언어태도는 특정한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언어태도 변화 연구 또한 사회언어학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보고 있다(Fasold, 1985).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특정한 변수에 따라 변화된다면, 그리고 그 변수가 조절 가능한 것이라면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먼저 학습언어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가 학습언어능력 및 학습언어 성취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언어태도 연구들(최진숙, 2012; Choi, 2005; Loulidi, 1990; Tremblay, Goldberg & Gardner, 1995)을 살펴보자. 이들 연구들은 언어 학습현장에서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기 전에 언어태도를 조사했는데,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게 한 후 언어태도를 다시 조사 분석한 결과, 언어학습 전에 형성되었던 특정한 태도는 학습언어 능력과 학습언어성취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캐나다 학생들의 언어태도를 연구한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는 히브리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연구대상자들이 히브리어 수업에 노출 된 후 히브리어의 유창성이 훨씬 높아졌고, 히브리어에 대한 학습 의욕도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 언어학습전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언어태도는 언어능력 및 언어성취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론은 영어 학습 현장에서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언어태도를 조사한 최진숙(2002)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능력이 낮은 연구대상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물론, 영어 학습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능력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고, 나아가 학습자의 언어태도가 언어능력은 물론 학습자의 언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태도와 언어능력이라는 두 변수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특정한 언어의 능력 또한 언어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최근에 진행된 최진숙(2017)의 연구는 한국어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영어수업에 노출시킨 후 그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변화분석에서 학기 초 측정된 태도평점에 비해 학기 말에 측정된 태도평점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능력과 언어태도가 명확하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정확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어능력이 높은 연구대상자일수록 영어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한국어능력이 낮은 연구대상자들은 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태도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능력이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영어로의 노출을 높이면 영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언어로의 노출이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학습현장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언어로의 노출도를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의 연구는 히브리어라는 특정한 언어로의 노출이 히브리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히브리어 능력도 향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Knuver & Brandsma(1993)의 연구 또한 학습언어로의 노출이 매우 중요한 변수

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nuver & Brandsma(1993)는 영어를 사용하는 212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어 수업을 듣게 한 후, 네덜란드어 학업성취도와 언어태도와의 관계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 결과, 네덜란드어 수업을 시작할 때 네덜란드어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2년 후 태도를 다시 측정했을 때 네덜란드어 학습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는 물론, 이 학생들의 언어성취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자들은 언어태도를 알고 있으면 학습하는 언어의 성취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성취도를 높이려면 언어태도 변화를 측정하여 언어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학습현장에서의 언어태도변화 측정은 보다 효과적인 언어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학습언어로의 노출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언어를 학습할 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학습언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학습 언어에 노출되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학습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연구들(오희정 & 이은희, 2011; 최진숙, 2015; Gardner, Day & MacIntyre, 1992)중에 먼저 최진숙(201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최진숙(2015)은 영어강의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8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영어강의 및 영어 학습에 노출 시킨 후 영어에 대한 두려움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기 초에 나타났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학기 후에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영어 학습 한 학기 후 영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증가와 관련하여, 언어학습 현장에서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능력이 낮은 경우,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따라서 학습결과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습에 보다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 학습을 강화시키고,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영어강의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슷한 언어능력 수준을 가진 학습자들이 하나의 언어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비슷한 한국어능력 수준을 가진 외국인유학생들이 같은 한국어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위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Gardner, Day & MacIntyre(1992)의 연구 결과 또한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일정기간 언어학습으로의 노출의 양을 높여주면, 그 두려움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ardner, Day & MacIntyre(1992)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언어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통제가 가능한 언어학습 현장에서 학습언어를 직접 접촉하게 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학습언어에 노출이 된 후 두려움의 정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언어 태도 변화를 측정할 때,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변화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언어성취도에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Gardner, 1985). 즉, 학습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성취도를 높이려면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위에서 발표된 많은 언어태도 변화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학습하는 언어의 노출의 양을 늘리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Loulidi, 1990), 이러한 노출의 양은 언어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언어능력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0).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반드시 노출의 양에 따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문 결과들도 있다. 즉, 언어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노출의 양(quantity)보다 노출의 질(quality)이 중요하고(Gardner, 1985), 단기간의 노출의 양은 언어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간의 노출은 중립적인 태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oi, 2005)도 있다. 먼저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언어태도 연구를 진행한 연구결과들(최진숙, 2011; Choi, 2005)을 보면, 처음 조사(1997년)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조사(2004년)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나아가, 중요한 발견은 세 번째 조사(2011년)에서는 그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언어태도가 중립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영어 학습에 노출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학습언어에 대해 특정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태도 중립의 가능성은 학습언어와 학습언어로의 노출도와의 관계 연구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밝혀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언어를 학습하는 현장에서 언어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어태도 형성은 언어학습 현장에서 노출의 양보다는 학습자들이 언어학습과 관련해서 겪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영어를 배우는 일본학생들의 언어태도 변화를 연구한 Stagich(1998)는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려면 학습하는 양보다는 학습의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자는 언어학습이 이루어

지는 수업에서 학습의 질을 강화하려면 학습자들을 문화적 활동에 참여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습언어와 관련된 문화체험은 학습자들의 언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태도로 변화시키는 요인은 교수자의 역할(Mantle-Bromley, 1995) 및 교수법(박상옥, 2009)이라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들도 목표언어에 노출된 환경에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어 학습에 노출되어 있던 연구대상자들의 언어태도 변화를 측정하고, 나아가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도 한국어 학습에 노출 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 분석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Y대에 영어성적으로 입학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8명(남학생 21명, 여학생 7명)이 두 번의 설문지조사에 참여했다. 연구대상자 모두 현재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2학년 학생들이며 입학했던 2018년 1학기부터 전공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수업을 수강해왔다. 본 연구기간 중인 2019년 1학기에는 한국어 수업인 ‘한국어 연습과 활용’ 과목을 이수했다. 본 교과목을 이수한 연구대상자들 28명의 평균 점수는 78.32(100점 만점)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대학을 입학 할 때 국제 영어능력 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성적을 제시했으며, 모두 입학자격성적인 5.5(9.0점 만점)이상의 영어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입학 시 제시한 영어능력 성적에 따른 언어태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IELTS 성적에 따라 28명의 연구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각각 집단 E1(14명, IELTS 5.5): 집단 E2(9명, IELTS 6.0): 집단 E3(5명, IELTS 6.5)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한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기숙사 및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3.2. 설문조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양적 조사지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전체 구조 및 내용은 최진숙(2017)의 연구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리뷰(review)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영어성적으로 입학했어도 그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지 항목을 영어로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한국어 또한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문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의 질문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외국인유학생들의 이해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한지 1년 반 되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유학생들(인도네시아 3명, 베트남 2명)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시험조사(pilot test)가 이루어졌다.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내용은 수정하고 보다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 순서 등을 변경한 후, 실제 설문지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가 만들어졌다. 또한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조사 절차과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설문지의 모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질문을 한국어 및 영어로 해석해주었다.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28명 모두에게 한명씩 설문지 조사의 목적과 본 설문지결과는 본 연구 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기 초인 2019년 3월에 첫 번째 설문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설문지조사는 한학기가 지난 2019년 9월에 첫 번째 설문지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월과 9월에 진행된

설문지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변화(N=28)

항목	3월	9월
한국어 대한 느낌	3.54	3.75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필요성	4.32	4.37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4.25	4.58
한국어 사용의 편안함	3.74	3.76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2.37	2.04
한국인에 대한 느낌	4.06	4.14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4.03	3.94

(매우 긍정적 5, 매우 부정적 1)

먼저 위의 표 1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태도 평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필요성’ 및 ‘한국어 사용의 편안함’은 각각 0.05와 0.02 포인트로 소폭 상승한 반면, ‘한국어에 대한 느낌’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은, 각각 0.21과 0.11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에 대한 항목의 평점은 상승 폭이 0.33(4.25 vs 4.58) 포인트로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의 변화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항목은 두 설문지 조사의 결과에서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정확히 같은 폭으로 0.33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한 학기의 한국어수업을 마치면서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수업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에 대한 언어태도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의 조사에서 나타난 태도 평점 4.03에 비해, 6월의 조사에서 측정된 태도평점은 3.94로 0.09포인트 낮아진 태도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위의 표 1의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한 학기동안 한국어수업에 노출된 후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습 현장에서 특정한 언어로의 노출이 되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Gardner, 1985; Loulidi, 1990; Miller, 2000)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6개월은 언어학습에서 단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학습언어로의 노출은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다는 연구결과(Choi, 2005)와도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언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언어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최진숙, 2011)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하는 언어로의 노출이 높아질수록 두려움도 낮아진다는 위의 선행연구들(오희정 & 이은희, 2011; 최진숙, 2012; Gardner, Day & MacIntyre, 1992)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위의 표 2의 결과가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항목보다 처음부터 매우 낮은 평점(2.37)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해서 더욱 낮은 평점(2.04)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항목에 비해서 태도 평점이 낮은 것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은 한 학기동안의 한국어수업이 향상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평점이 향상되지 않고 더 낮아진 이유는 한국어수업 내용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즉, 현재 한국어 수업을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skills)적인 부분, 즉,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한국어라는 언어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향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시할 수 있는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수업현장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한국문화를 같이 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언어 문화에 노출시키고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문화와 접촉하는 것이 언어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한 연구결과들(Mantle-Bromley, 1995; Statch, 1998)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에 대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에 문화 활동을 포함시키고 학습자들이 직접 한국어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로의 노출도 변화

다음은 학습언어 능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가 한 학기 동안 한국어수업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 변화(N=28)

항목	3월	9월
한국어 사용 빈도	4.08	4.33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	3.39	3.85
한국문화(영화, 음악, 음식 등)와의 접촉빈도	3.88	4.16

(매우 자주: 5, 전혀: 1)

위의 표 2를 보면, 놀랍게도 모든 항목에서 노출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사용빈도’는 4.08에서 4.33으로 0.25 포인트 높아졌으며,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는 3.39에서 3.85로 무려 0.46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수업이 한국어능력 향상으로 유도했고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은 보다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한국인과의 대화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의 표 2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에 대한 태도평점이 오히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2에서의 ‘한국문화와의 접촉’ 빈도는 3.88에서 4.16으로 0.28 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과 별개로 한국문화와의 접촉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태도와 접촉빈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표 2에 나타난 노출도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사용빈도’ 및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의 평점 상승의 변화는 연구대상자들의 시간제근로(part-time job)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3를 보면,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연구대상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22%늘어났고, 평균근로시간도 일주일에 2시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시간제근로를 하는 동안 한국인과의 접촉과 한국어 사용이 빈번해졌다. 따라서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로의 노출도 향상은 연구대상자들이 시간제근로에 더 많이 참여했고 시간제근로 시간도 더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 시간제근로 여부 및 평균 근로시간 변화

항목	3월	9월
시간제 근로 여부	71%(20명)	93%(26명)
평균근로시간	16.5시간/일주일	93%(26명)

그리고 위의 낮아진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평점(4.03→3.94)과 늘어난 ‘한국문화와의 접촉빈도’ 평점(3.88→4.16)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어 수업 및 시간제근로로 인한 접촉을 통해 한국어사용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ardner(1985)에 따르면, 특정한 언어에 대한 접촉도가 높아지면 이에 호감도 높아지고, 그 문화에 대한 호감도 높아진다. 그의 주장을 본 연구에서 보면, 연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 영어문화에 대한 태도가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아직 대체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3. 영어능력별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

이제 위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한국어로의 노출도가 대학 입학 시 연구대상자들이 가졌던 영어능력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보자.

표 4. 입학 시 영어능력별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 (N=28)

그룹	A		B		C		D		E		F		G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E1	3.63	4.01	4.33	4.11	4.34	4.29	3.89	3.86	4.00	4.13	3.67	3.51	+0.05
E2	3.51	3.25	4.12	4.08	4.41	4.48	3.84	3.89	4.03	4.08	4.42	3.80	-0.30
E3	3.48	3.98	4.51	4.92	4.01	4.98	3.50	3.52	4.15	4.21	4.00	4.50	+2.46

(매우 긍정적 5, 매우 부정적 1)

E1: IELTS 5.5, E2: IELTS 6.0, E3: IELTS 6.5, A: 한국어에 대한 느낌,
 B: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필요성, C: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D: 한국어사용의 편리함,
 E: 한국인에 대한 느낌, F: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G: 전체항목 평점차이

위의 표 4는 3월과 9월에 조사한 각 항목의 태도평점 결과들을 영어능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입학 시 영어능력별 태도변화의 전체평점을 보면, 세 그룹 중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E1 그룹이 0.05포인트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영어능력이 중간에 속하는 E2그룹은 전체항목 태도 평점에서 오히려 0.30 포인트 감소했다. 그리고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그룹의 전체 항목 평점은 무려 2.46포인트가 향상됨으로써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수업으로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E3그룹은 모든 항목들, ‘한국어에 대한 느낌’(3.48→3.98),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필요성’(4.51→4.92),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4.01→4.98), ‘한국어사용의 편리함’(3.50→3.52), ‘한국인에 대한 느낌’(4.15→4.21),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4.00→4.50)에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특히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의 태도변화 평점은 0.97포인트나 상승하여 모든 그룹의 모든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능력성적이 높은 유학생들이 한국어수업에 노출되면 한국어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입학 시 영어능력이 낮았던 유학생들보다 한국어능력도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5의 결과를 가지고 입학 시 유학생들이 가졌던 영어능력이 언어태도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세 그룹 중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E1그룹 긍정적인 태도변화(+0.05)를 보였지만, 중간정도의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E2그룹이 전체항목 언어태도변화 평점에서 부정적인 차이(-0.30)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어능력별 언어태도에 대해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한국어에 대한 느낌’은 3월 태도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언어태도 평점이 높았다(3.63-3.51-3.48). 그러나 9월에는 영어능력이 제일 높은 E3그룹(+0.50)과 제일 낮은 E1그룹(+0.38)에서만 언어태도가 향상되었고, E2그룹(-0.26)은 향상되지 못했다. 즉, 처음에 가졌던 영어능력 변수는 6개월 후에는 영어능력별로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능력에 따라 태도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이미 논의된,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 그룹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2.46)를 보였고 다음이 중간 영어능력 그룹이 아닌(-0.30) 가장 영어능력이 낮은 그룹이 긍정적인 변화(+0.05)를 보여준 전체 항목 평점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항목을 보면, 9월 태도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별 태도 평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9-4.48-4.98). 나아가 이 항목의 태도평점 변화 차이도 정확히 영어능력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인 E1그룹은 -0.05포인트 차이를 보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반면, 상대적으로 E1그룹보다 영어능력이 높은 E2그룹은 +0.07포인트, 가장 영어능력이 높은 E3그룹은 무려 +0.97포인트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는 영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한국어학습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느낌’(E:4.00-4.03-4.15) 3월 조사 및 ‘한국문화에 대한 느낌’(F: 3.51-3.80-4.50) 9월 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에 따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위의 표 5.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위의 표 5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들이 대학 입학 시 제시한 영어능력이 한국어로의 노출 후 태도변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분명 영어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룹별 분석한 결과를 아래 그래프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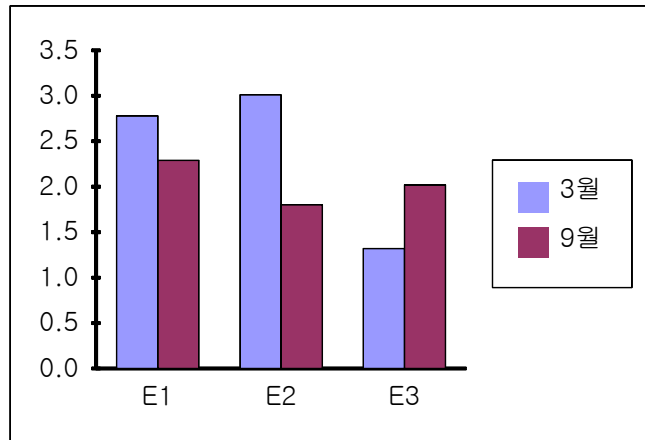


그림 1. 영어능력별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변화 (N=28) (5: 매우두려움, 1: 전혀)

위 그래프 1을 보면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E1그룹에서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2.78에서 2.29로 0.49포인트로 낮아졌고, 영어능력이 중간인 E2그룹은 3.01에서 1.80으로 1.2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E2그룹은 3월 조사에서 세 그룹 중 두려움이 가장 높았는데, 9월 조사에서 가장 많이 두려움이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는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그룹에서 나타났다. 이 그룹은 3월 태도조사에서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1.32)을 보여 주었는데, 9월 태도조사에서 오히려 2.0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E1그룹(2.29)보다는 낮은 두려움 평점이지만, 3월 조사에서 보여준 매우 낮은 두려움은 6개월 후 반등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습에서 ‘두려움’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Gardner, Day & MacIntyre, 1992; 최진숙, 2012)에 따르면, E1과 E2그룹은 앞으로 한국어능력 향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E3그룹은 더 높아진 두려움으로 한국어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그룹이 3월 태도조사에서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그룹들(E1, E2)보다 가장 낮은 언어학습의 두려움을 보여준 것은 상대적으로 영어능력이 낮은 그룹보다 한국어학습에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3그룹에서 6개월 후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진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제시할 수 없다. 위의 그래프 1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영어능력이 높은 연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영어능력이 낮은 연구대상자들과 비교해서 언어학습 후 두려움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한국어수업을 통해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낮출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이어 연구대상자들이 입학할 때 제출한 영어능력에 따라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N=28)

그룹	A		B		C		G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E1	3.80	4.63	3.66	3.75	3.10	3.88	+0.05
E2	3.94	3.98	3.00	3.80	4.51	4.11	+0.44
E3	4.51	4.39	3.50	4.01	4.50	4.98	+0.87

(매우 자주: 5, 전혀: 1)

E1: IELTS 5.5, E2: IELTS 6.0, E3: IELTS 6.5, A: 한국어 사용 빈도,
 B: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 C: 한국문화(영화, 음악, 음식 등)와의 접촉빈도,
 G: 전체항목 평점차이

위의 표 5에서 제시한 3월과 9월에 진행된 두 설문지 조사에 의한 노출도 변화를 보면, 세 그룹 모두에서 3월에 비해

9월에 노출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E1그룹에서 가장 큰 노출도 향상(1.70)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E3그룹이 0.87포인트 상승, 마지막으로 E2그룹이 0.44포인트 태도평점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 변화의 폭은 일정기간 한국어수업 후 영어능력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결론내기는 어렵지만, 입학 시 영어능력이 가장 낮았던 그룹이 가장 큰 노출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은 중요한 결과이다. 입학 시 영어능력은 입학 조건보다 크게 높지 않아도 한국어수업으로 인해 노출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표 6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적으로 노출도 변화의 가장 큰 폭은 E1그룹에서 나타났지만, ‘한국어 사용빈도’는 3월 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별 노출도가 높았다는 것이다(3.80-3.94-4.51). 즉, 한 학기 수업 전에는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한국어를 보다 자주 사용했는데, 한 학기 후에는 영어능력이 낮은 E1그룹에서 한국어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E1그룹에서 한국어능력 향상도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의 표 5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한국인들과 접촉빈도’이다. 이 항목은 3월 조사에서 영어능력에 따라 노출도가 움직이지 않았다(3.66-3.00-3.50). 그러나 9월 조사결과, 영어능력이 높은 E3그룹에 가장 높은 노출도가 측정되었고, 영어능력이 낮은 E1그룹에서 가장 낮은 노출도가 나타났다(3.75-3.80-4.01). 즉, 세 그룹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인들과의 접촉 빈도’가 증가했고, 영어능력에 따라 이러한 한국인들과 접촉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확히 영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한국인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다. 나아가서, ‘한국문화와의 접촉빈도’ 또한 9월 조사결과를 보면 영어능력별 접촉빈도가 정확히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8-4.11-4.50).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능력별 노출도 변화 폭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영어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로의 노출도가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 표 6이 제시해주는 것은, 영어능력별 전체항목들 중, 두 항목(E3그룹의 ‘한국어사용빈도’(4.51-)4.39)와 E2그룹의 ‘한국문화와의 접촉빈도’(4.51-)4.11))을 제외한 세 그룹의 모든 항목 평점이 6개월 후 증가했다는 것이다. 즉, 영어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언어학습은 학습언어와 관련된 학습언어사용자 및 학습언어 문화로의 노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보았다. 또한 언어를 학습하는 환경에서 학습언어로의 노출도는 학습언어능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Miller, 2000), 영어능력성적을 갖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학습에 노출되면, 한국어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한국인 및 한국문화와의 접촉도 향상은 물론 한국어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졌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대학에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한국어수업에 6개월 동안 노출 된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의 언어태도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에 대한 태도평점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모든 항목들의 평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능력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3월 언어태도 조사결과에 비해 9월 언어태도조사 결과에서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9월 언어태도조사에 나타난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도 또한 지난 3월 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아졌다. 이와 같은 노출도 향상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연구대상자들이 늘어났고 시간제 근로시간이 6개월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언어태도 변화 조사와 함께 연구대상자들이 입학할 때 제시한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따라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는 영어능력 중간그룹에서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부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입학 시 제출한 영어능력은 언어태도 변화의 폭과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그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변화 폭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영어능력이 중간인 그룹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은 세 그룹 모두 향상되었지만,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서 노출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한 학기 동안 한국어수업으로의 노출이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조심스럽게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대로 한국어에 대한 태도평점이 높을수록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으로 인해 한국어의 사용 빈도는 물론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와 노출도 향상은 위의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어능력 없이 영어능력만을 가지고 입학했어도 한국어학습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이 한국어수업에 지속해서 노출된다면,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영어능력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을 갖추었다면 한국어수업을 통한 언어태도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전체적인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및 한국어로의 노출도 변화는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는, 영어능력으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이 일정기간의 한국어수업을 받은 후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변화는 영어로 입학한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어환경에 적응하고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한국거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그룹의 연구결과를 다른 국가그룹에게 적용하는 것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수가 28명으로 모집단이 크지 않고, 나이가 영어능력별 세 그룹으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E3그룹의 연구대상자는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타당성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연구기간동안 연구자의 수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연구자에 의한 관찰(observation)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본 연구결과와 관찰조사 결과의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 또한 연구대상자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제 본 연구결과가 신뢰성을 가진다면, 아래와 같은 제안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으로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도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박미숙 외, 2014; 박순영, 2015; 주동범 & 김향화, 2013; 안위 & 최영, 2016; 최진숙, 2015; 최현실, 2018)이 보고 했듯이 한국어능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대학에 영어로 입학하는 유학생들 또한 한국어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처럼 처음에는 한국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환경에 보다 많은 노출을 시도한다면 한국에서의 학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령인구 절벽으로 입학자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대학들은 영어능력 기반 외국인유학생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학은 한국어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법등을 도입하여 영어능력 기반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대학 입학 후 불편함 없이 학업으로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환경 인프라(행정시설 및 영어를 사용하는 행정인력 등)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참고문헌

- 교육통계. (2018). *고등교육기관 외국인유학생수*. Retrieved from <http://kess.kedi.re.kr/index>,
- 박미숙, 홍유나, 김영순. (2014). 외국인대학원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스트레스 및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109-140.
- 박순영. (2015). *외국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안위, 최영. (2016).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능력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4, 195-222.
- 오희정, 이은희. (2011). 영어강의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와 영어강의의 효과. *영어교육연구*, 22(4), 211-229.
- 이현진. (2019). 외국인 유학생 15만명 시대...캠퍼스에 부는 '다문화'바람. *한국대학신문*, 2019년 3월 18일.
- 주동범, 김향화. (2013).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교육연구*, 23(1), 123-145.
- 최진숙. (2017). 한국거주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별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 *사회언어학*, 25(3), 327-349.
- 최진숙. (2016). 외국인유학생들의 영어능력과 한국어능력과의 관계 분석. *언어학*, 24(4), 219-234.
- 최진숙. (2015). 중국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과 시간제근로와의 관계분석. *언어학*, 23(2), 115-131.
- 최진숙. (2012). 영어강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변화 연구. *언어학*, 20(3), 137-155.
- 최진숙. (2011). 초등학생들의 언어태도 변화 연구. *Linguistic Research*, 28(2), 431-450.
- 최진숙. (2002). 영어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 *외국어연구*, 22, 129-144.
- 최현실. (2018).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1, 71-93.

- Baker, C. (1993). *Foundation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hoi, J. S. (2005). Changing attitudes to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English Language Teaching*, 17(2), 1-24.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Gardner R. C., Day, J. B., & MacIntyre, P. D. (1992). Integrative motivation, induced anxiety and language learning in a controlled environment.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4(2), 197-214.
- Knuver, A. W. M., & Brandsma, H. P. (1993). "Cognitive and affective outcome in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4, 189-204.
- Loulidi, R. (1990). Attitudes towards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Protestant and Catholic schools in Northern Ireland. *Language Culture and Curriculum*, 3(3), 227-238.
- Mantle-Bromley, C. (1995). Positive attitude and realistic beliefs: Links to proficiency. *Modern Language Journal*, 79(3), 372-386.
- Miller, J. M. (2000). Language use,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Migrant students in Australia.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3(1), 69-99.
- Stagich, T. (1998). Cultural context and meaning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General Linguistics*, 36(1-2): Spring-Summer, 71-79.
- Tremblay, P.F., Goldberg, M. P., & Gardner, R. C. (1995). Trait and state motivation and the acquisition of Hebrew vocabular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3), 356-370.

최진숙

10. How much do you like Korean culture (e.g. food, movies, fashion, music)?

(한국문화 (예, 음식, 영화, 패션, 음악 등)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Very much _ : _ : _ : _ Not at all
(매우 좋아함) 5 4 3 2 1 (매우 싫어함)

최진숙

612-743 부산시 해운대구

영산대학교 글로벌학부 교수

전화: 051)540-7092

E-mail: jinachoi1@naver.com

Received on November 15,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30, 2019

Accepted on December 30, 2019